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TEL. 544-0610
544-0611
FAX. 544-0611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創意 ● 奉仕 ● 誠實

漁港基盤 擴充으로 福祉漁村건설

改正水産業法 국회통과
漁業피해補償制등 補完

어업免許優先順位조정

水産施策、어민參與機會늘려

下位法令등개정 91年1月께施行

수산업법이 개정추진 5년만에 국회를 통과, 새로운 제도에 의한 수산업의 장이 열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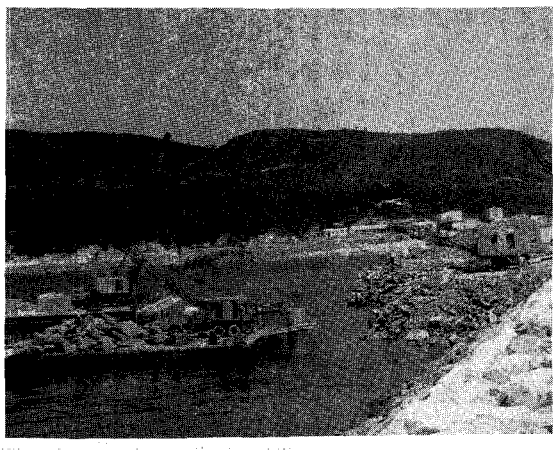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수산업법은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조정, 제1종 양식어업과 2종양식어업으로 구분해 공동관리가 용이한 양식은 어촌계에 우선 면허토록 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어장소유자와 타도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면허를 제한하는등 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어업피해보상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어획물 운반업에 대한 허가제도 신설, 육성수면의 지정 특히 유료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밖에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 수산시책의 추진 등에 어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수산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새로운 면허나 허가를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 모두 11장 1백15조에 34개조문이 신설되고 42개 조문은 내용이 수정되는 등 법률내용이나 체제가 전면적으로 정비 또는 보완됐다.

개정 통과된 수산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수산업법이 통과됨에따라 시행령·수산자원보호령등 하위법령의 본격적인 개정작업이 폭넓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법이 개정추진5년만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항건설도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

漁港要覽 새로發刊

韓國漁港協會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도서간행물사업으로 87년11월 「漁港의 案內」에 이어 지난 6월 「漁港要覽」을 발간, 유관단체·회원사·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어항요람에는 어항과 그 역할, 어항의 자연조건, 지형조건에서 본 어항등 어항의 관리와 건설에 대한 정보등이 수록돼 있으며 어항

90建設工事都給한도確定

7月1日부터 91年6月末까지 適用

건설부는 7월2일 일반 및 특수건설업자에 대한 「90년도 건설공사도급한도액」을 확정, 발표했다.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될 올 도급한도액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한도액 1천억원이 넘는 업체는 지난해와 같은 17개사이며, 500~1천억원미만 업체는 21개사(△7개사), 100~500억원미만 업체는 118개사(△47개사), 30~100억원미만업체는 292개사(△2개사), 30억원미만 업체는 189개사(△118개사)로 각각 증가됐다.

총637개 업체중 본협회 회원사의 순위 및 도급한도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부토건(주) 26위(706억3백만원), △임광토건(주) 43위(410억3천6백만원), △금광기업(주) 69위(230억9백만원), △효성중공업(주) 93위(163억2천3백만원), △남화토건(주) 94위(159억6천7백만원), △(주)우주종합건설 106위(136억1백만원), △성보건설산업(주) 150위(101억7천2백만원), △아남건설(주) 151위(1백억8천7백만원), △신우건설(주) 163위(95억1천9백만원), △세기건설(주) 172위(90억3천2백만원), △영생건설(주) 205위(81억9천2백만원), △신풍건설산업(주) 208위(81억5백만원), 광남개발(주) 238위(73억5천7백만원), △(주)성호 245위(72억4천만원), △조흥공영(주) 271위(67억6천9백만원), △남진건설(주) 353위(52억1천3백만원), △(주)삼건사 369위(47억5천2백만원), △(합)대한토건사 375위(46억3천9백만원), △삼호산업(주) 461위(27억1천8백만원).

漁港要覽 새로發刊

韓國漁港協會

한국어항협회는 어항도서간행물사업으로 87년11월 「漁港의 案內」에 이어 지난 6월 「漁港要覽」을 발간, 유관단체·회원사·회원에게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어항요람에는 어항과 그 역할, 어항의 자연조건, 지형조건에서 본 어항등 어항의 관리와 건설에 대한 정보등이 수록돼 있으며 어항과 관련한 행정에 대해서도 기록돼 있다.

모두 1백24쪽의 이 자료집에는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과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수록돼 있으며 참고자료로 어항법, 어항법시행령등 어항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일반수산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暴風피해最少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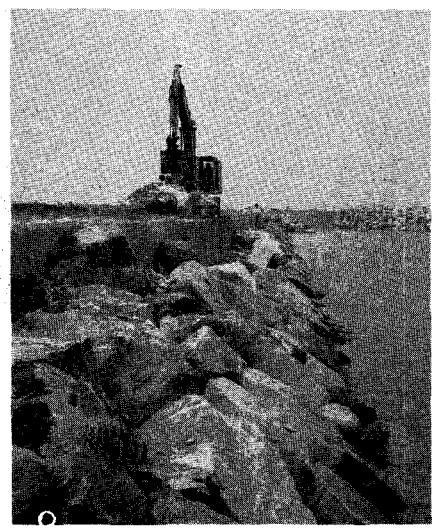
先端部등 서둘러야

수산청은 여름철 태·폭풍기에 대비, 어항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관과 시공사등에 시달했다.

수산청은 이 지시에서 태·폭풍기전에 주요공정을 마무리하고, 기상예보를 항시 청취하여 피해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과 선단부등 주요공정을 끝내고 피해취약구간을 응급조치하며 자재와 장비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示方書仕樣준수 精密施工등指示

水産廳、施工評價結果通報에서



수산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규정에 의거 실시한 시공평가결과를 현장감독관에게 통보,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정밀시공이 되도록 지시했다.

수산청은 89년도완공항인 능포, 신양, 양포항에 대한 시공평가를 갖고, 시공이음표면은 미관저해를 방지키 위해 삼각면대에 의한 홈따기로 처리하고, TTP제작철재 거푸집의 노후에 따라 시멘트풀의 누수로 인한 재료분리 현상을 방지, 콘크리트 타설시 배기공과 신축이음재 설치시 시방서 규칙을 준수하는등 어항시공법을 개선키로 했다.

또한 수산청은 90년도 완공항에 대해 준공과 동시에 현장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현장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해 완공된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가설물 및 폐자재등을 조속히 철거, 정리토록 시공사에 지시했다.

어촌따라 어항개발 어항따라 관광개발

어항표어

알림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한국어항협회는 회원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 옹호하는 한편 협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관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관건립을 위한 재원은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데 우선 회원들의 정성부터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어항협회가 회관건립 기금을 모금하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서는 회관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금을 기탁해 주셨고, 특히 본회 발행기관지인 「어항」지와 「어항소식」지에 실림을 기울여 글을 써 주신 분들께서는 원고료마저도 선뜻 쾌척하시는 등 실로 본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감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회관 건립의 반석이라할 이 갸륵한 「정성」을 우선 기금으로 모으기로 했으며, 그 깊은 뜻과 큰 정성이 소망하신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會員權益옹호 基盤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 주택은행언주로지점 482601-87-002039

焦点

「레저시대」가 열린다
새 觀光대상「漁港」

전반적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하여 레저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네 휴식공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사실 휴일을 맞아 근교의 산이나 공원에라도 한번쯤 나들이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현장을 몸소 체험했을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할 필요없이 전국토가 앓고 있는 중병이기도 하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확실히 어촌은 매우 신선하고, 매력있는 휴양지가 아닐 수 없다。게다가 그런 어촌이 어항이라도 하나 끼고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른바 아직 오염이 덜돼 공기가 맑고, 인심도 넉넉하며,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漁村民泊

이런 탓인지는 몰라도 해마다 이맘 때쯤, 소위 바캉스철이 다가오면 어촌의 어민들이 본업인 출어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그 까닭은 구태여 출어를 하지 않더라도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적당한 영업(?)만으로도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최근의 흉어와 수산자원고갈이라는 직접적인 원인도 내재돼 있을 것이나 그보다는 관광객 뒤치다꺼리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현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관광어촌개발의 명분과 어항건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당위성이 나타난다。

기왕에 휴식공간이 부족하여 쩔쩔 매는 도시인, 관광객들에게 잘 갖춰지고 정비된 이색적인 휴식공간을 연중 제공한다면 여가선용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반대 급부로 짭짤한 어업외 소득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속된 말로 하자면 지금까지의 「여름 한철 장사」를 「사철 장사」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漁業外소득늘어

그동안 우리 어촌의 어업외 소득은 꾸준한 향상을 보여 왔다。80년 총어업소득 2백59만6천원 가운데 32·5%인 84만4천원에 불과하던 어업외 소득이 85년엔 42·4%인 2백5만4천원, 지난해엔 무려 48·6%인 3백92만7천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어업외 소득에는 농업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어촌관광소득은 제대로 가늠해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모르긴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민박이나 부식거리 판매, 일부 어획물 판매와 같이 지극히 제한된 수입원만을 가정했을 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소득원의 질적 향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근본적으로 어촌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진정한 의미의 어촌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부터 갖출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마음 편안하게 연중 언제, 어느 때 찾아와도 내집같이 푹 쉬다갈 수 있는 그런 어촌을 만드는 것이 어촌관광지화의 첫걸음이라는 말이다。

觀光施設수용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현재 우리의 여건상 단시일내에 이룩하기에 현실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매우 많다。가장 좋고 이상적인 방법을 들라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어항인들이 어항을 건설하거나 시설을 보완할 때 이러한 어촌관광지화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병행해 나가는 방법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와 여러모로 상황은 다르지만 일본의 어항개발상황을 다시금 예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어항개발은 이른바 마리노베이션 구상이라 하여 이같은 모든 기능을 망라한 종합적인 어항을 만드는데 있다。

어촌관광부문만을 국한해서 본다면 방파제, 호안도로 가까이에 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쾌적한 바다를 맛볼 수 있게 하며, 낚시터·인공모래밭·캠프장·이벤트광장을 설치해 위락시설을 갖출 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시설의 보전과 개·보수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만반의 정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水産中興돌파구로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금번 한국어항협회에서, 이러한 우리 어촌과 어항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어항실태와 개발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확인하며, 느낄 수 있도록 제2차 선진어항시찰단을 파견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촌개발이 어민만의 몫이 아니요, 그렇다고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도 아니라면 어항인을 포함한 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수산인이 전적으로 힘을 합쳐 이에 앞장 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어(離漁)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시근로자에 못미치는 소득이 주범이라면, 이에 맞설 수 있도록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함께 머리를 모으는 것이 위기에 몰린 우리나라 수산업을 중흥하는 돌파구가 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建築法改正案입법豫告

건설부는 국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지목변경등 10여종의 관련 건축허가시 인허가사항을 동시에 처리하고 지자제실시에 대비, 건축행정을 지방에 처리하는 등 건축법 전면개정안을 마련,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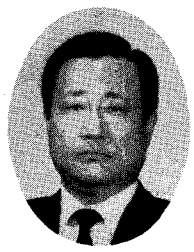
전문 78조문으로 된 이 개정안은 이달중 관계부처협의 공청회등 의견을 수렴, 최종 확정된 뒤 정기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지목변경, 공작물 설치허가가설건축물설치 등 10여종의 인허가사항을동시에 처리하고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중간 및 준공검사업무를 건축사협회와 건축시공감리전문회사 등 민간전문기관이 대행토록 하며 공사중 경미한 설계변경은 준공전에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日、91漁港豫算作業

일본 수산청 어항부는 1991년도 어항예산편성작업에 들어가고 있으며 일미구조(日米構造)협의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성의 기본방향이 「農山漁村의 生活環境向上」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침에 따라 어촌의 생활환경정비의 확충에 목표를 두고있다。

動靜



▲윤옥영수산청장은 7월 12일 한·일의원연맹회의차 내한한 아오키니키오 참의원의원과 토츠카신야 중의원의원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어업협력문제에 관해 환담했다。

▲안중철수협중앙회부회장은 7월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민자당 박태준대표위원초청 농어민단체대표초청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립수산진흥원 해양자료센터는 7월10일부터 「한국전쟁당시의 해양자료전」을 갖고 있다。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해도를 비롯, 미해군발행의 부산항박도, 1950년8월의 부산항 칼러사진등이 선보이고 있다。

▲최순남광남개발(주)대표이사는 지난 6월25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90년도 제2기 경영자연수과정을 이수했다。

취임

▲이종휘씨(수협중앙회 전 부회장)는 6월1일 한국냉장주식회사 상임고문에 취임했다。

출장

▲하성환국립수산물검사소장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42차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참석키위해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출장。

▲최상옥남화토건(주)대표이사는 캐나다에서 개최된 세계검도대회에 참석차 6월28일부터 7월6일까지 출장。

▲송재성(주)성호회장은 7월20일 전남돌산항등 공사현장에 출장。

▲박인성재원실업(주)회장은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업무차 인도네시아지역으로 출장。

인사

▲수산청은 6월22일 박정태사무관(원양개발기획담당)을 시설과 심사담당으로 발령했다。이에 앞서 송예용사무관(시설과 심사담당)을 총무과 경리담당으로 발령했다。

▲임광토건(주)은 지난 6월 신경식사장을 부회장으로, 김재휘부사장을 사장으로 발령했다。

▲효성중공업(주)은 6월16일 건설본부장에 송광용상무이사를 발령했다。

합격

▲지난 7월10일 총무처가 실시한 5급사무관승진시험에서 수산청직원6명이 합격했다。△이강희(연근해과) △유병수(원양개발) △정낙희(비상계획담당관실) △이상남(무역과) △정도훈(수산기술훈련소) △김성수(지도선)

개설

▲근해안강망수협은 6월22일 인천시북구 부개동에 상호신용점포 부개출장소를 신설했다。(전화) 517—8051

이전

▲김기복씨(전 (주)삼건사상무이사)는 최근 지성물산주식회사를 인수, 회장에 취임했다。(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477—6 (전화) 521—9334

▲인천시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장순복)은 7월16일 청사를 신축이전했다。(주소) 인천직할시남구주안동1533—24호。(전화) 조합장실 429—2711、전무실 429—2712、총무과 429—2706~7、지도과 429—2708、판매사업과 429—2710、기획검사과 429—2709、전산실 429—2713、신용부 429—2701~5、(FAX) 429—2700。

부음

▲이건재씨(수산청 여수어항관리사무소)가 7월10일 별세했다。장지는 전북익산군 원불교공원묘지。

기금기탁

▲이존양씨(수산청 어선과):금일봉

▲최재양씨(수산청 시설과장):금일봉

▲신영태씨(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금일봉

회비납부

■단체

<분담금>

▲금관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주식회사우주종합건설(회장 고세진)

▲세기건설주식회사(회장 양성후)

■개인

▲윤주영씨(동도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영원씨(수산청 어항과)

▲김영덕씨(수산청 어항과)

▲이종휘씨(한국냉장주식회사 상임고문)

▲임무성씨(주식회사삼일회장)

▲서기덕씨(대건중기주식회사 대표)

▲신영태씨(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종만씨(조흥공영주식회사 부사장)

내방인사

▲김병식씨(어민신문 회장)

▲허의두씨(어민신문 전무이사)

▲이태선씨(한국수산신보 편집부국장)

▲신관수씨(한국미역가공협회 삼무이사)

▲임승언씨(주식회사한국항공 상임감사)

▲김봉화씨(농수축산신문기자)

▲배환갑씨(영생건설주식회사 회장)

▲주홍장씨(한국원양어업협회 상근부회장)

▲장동익씨(주식회사오양해운 전무이사)

▲최철규씨(진서기업 대표)

▲황대흠씨(주식회사해양유통 대표이사)

▲김기수씨(인간문화재)

▲김현인씨(수산청 어항과)

▲박진해씨(수협중앙회홍보실)

▲이종만씨(조흥공영주식회사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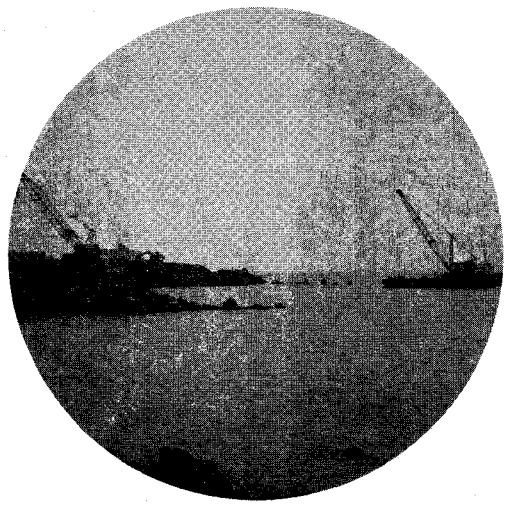
工期연장등業界負擔경감

資材購得難 勞賃등勘案

契約金額 조정등지시

정부는 최근 자재난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및 연체상금면제, 물가연동제를 실행하도록 산하기관에 시달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자재구득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음을 들어 내용에 따라 적정한 공기를 연장해 주거나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될 때는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도록 조치해 주고 자재가격 및 노임폭등



第2次 先進漁港視察團 11月初旬에出發

한국어항협회는 선진국의 어항실태와 현황을 직접 현지에서 두루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세의 어항역할과 어항개발 및 기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2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시찰단은 8박9일에 걸쳐 일본, 대만, 홍콩 등 선진어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시찰기간:90·11·6~11·14(8박9일)

◇시찰어항:<일본>하가다어항(博多), 젠가이어항(玄界), 신나가사끼어항(新長崎), 노모어항(野母), 아구내어항(阿久根), 에노구찌(江口), 이도만어항(系滿), 기노만(宜野灣)과 <대만>대북기륭항, 팔덕어항, <홍콩>아비딘어항.

◇참가대상:희망자(회원 및 어항인 우선)

◇소요경비:각자 자부담.

가. 1인당:1백57만6천3백40원.

1)신청금:30만원(9·30까지 납부)

2)잔금:1백27만6천3백40원(10·20까지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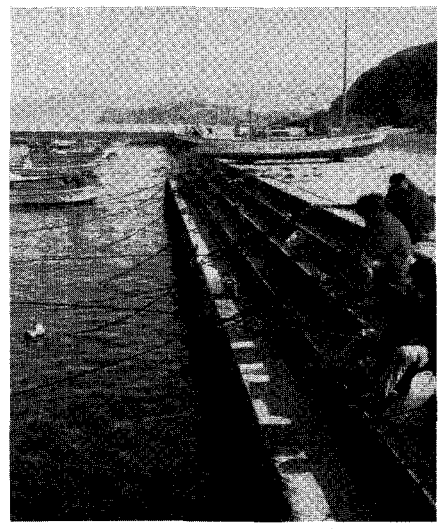
나. 본회구좌번호

1)주택은행 언주로지점:482601-1205150.

2)수협 논현동지점:039-01-255003.

◇신청마감:90·9·30.

◇기타사항은 본회로 문의바람.



90·91入札자격登録 조달청、10日부터

조달청은 90·91년도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갱신 및 신규)을 지난 7월10일부터 본청종합상담실 및 10개 지청관리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을 비롯 건축, 토목·건축등 9개업종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의 자격제한을 받지 않거나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한 업체라야 등록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등록구비서류는 조달청이 무료배부하는 등록신청서와 업종별 면허수첩사본(원본제시), 인감증명(지참제시), 등기부등본(법인체에 한함) 각 1통씩으로 해당지역 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며, 유효기간은 92년7월31일까지이다.

2개면허이상 소지업체는 1개접수처에 1회만 등록해야 하며 9개등록대상업종 이외의 경우는 입찰참가시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내야한다.

조달청은 90·91년도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 관계당국에 건의함에 따라 내무부, 해운항만청등에서 이 건의사항을 수용 산하기관에 시달했다고 알려졌다.

내무부는 산하기관 시달공문에서 「각급지방자치단체는 시공업체의 조정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지 않기 바란다」고 했고, 해운항만청은 「물가변동등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기 바라며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지시했다.

第3回 漁港寫眞公募

많은 應募바랍니다

어항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어항에 대한 새롭고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어항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로 어촌정주환경에 기여하고자 한국어항협회에서는 올해도 어항사진을 공모합니다.

본회 회원, 어항관련종사자 및 수산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 어항사진공모에는, 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든 작품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출품을 원하는 분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 직장, 성명을 기재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한국어항협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자격:본회회원, 어항관련 종사자 및 수산인

■ 출품대상: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든 작품

■ 종류 및 규격:흑백 및 칼라 4×5이상

■ 출품점수:제한없음

(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설명기재)

■ 출품기한:90년4월1일~10월31일까지

■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① 심사: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심사를 거쳐 금상1점, 은상1점, 동상2점, 가작5점 선정

② 발표: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 상패 및 상금

· 금상:상패, 20만원

· 은상:상패, 15만원

· 동상:상패, 10만원

· 가작:상패

■ 시상:90년 12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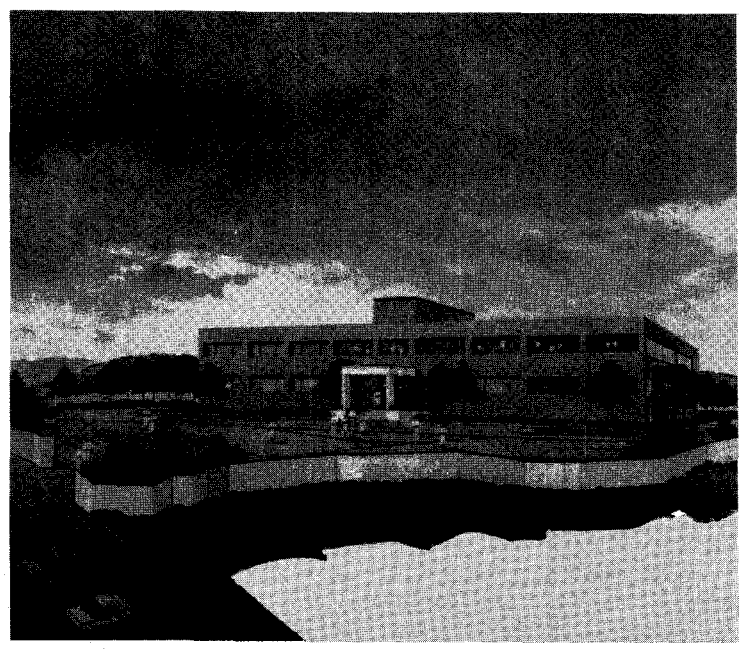
■ 기타:출품작품은 본회에 귀속, 어항지·어항소식에 게재.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135-010

漁業환경정비등考慮

일본 어항부는 78년이래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으로 어촌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확충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관방예산과의 전년대비 증가율등의 방침이 확고하게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항관계 예산도 어항정비사업의 신장율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신장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하여 8월초까지는 그 골격이 다듬어 질것이며 그후 농림수산성의 조정을 거쳐 9월말까지는 기산요구안이 결정될 것이다.



● 전산실 항온항습기 ● 산업용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조 ● 특수냉동 응용장치
● 자동제어장치 ● 냉동 냉장제작 ● 공기조화기 ● 저온창고시설 ● 설계시공

TACOM®
太光엔지니어링

會長 李 英 富
代表 安 永 植

본사·공장:인천직할시 북구 효성동 584-6
TEL. (032)517-5331~3
FAX. (032)517-5333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7-2
TEL. 631-5333~7
FAX. 631-5339
대구지사:대구직할시 동구 신천4동 317-8
TEL. (053) 753-9617
광주지사: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3가 1-1
TEL. (062)225-4243~4
FAX. (062)225-5820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14〕

航항 路로

가. 개 설

항로란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항 또는 항내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데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항내와 항외의 수역을 말한다.

항로를 계획하는 경우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항로법선(航路法線), 항로넓이, 항로수심 등이다. 이러한 것은 어선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항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황천시 어선 피난의 경우는 항구(港口) 부근의 항로가 좋고 나쁜데 따라 어선의 안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

항로는 항외, 항구(港口), 항내로 분류되나 이중 항내의 항로는 항내수역이 협소할 경우에는 조선용(操船用) 수역과 중복이용되고 곧 양수역같이 동일수심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지와의 구분이 명확치 못할 경우가 있다.

항구에서 외측의 항로는 천연의 해저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다음의 경우는 항로로서 특별히 준설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다.

1) 암초·산호초지역의 항
2) 조차가 큰지역의 항
3) 하구(河口)의 항
4) 이용어선이 대형으로서 여기에 대응하는 방파제를 바다쪽으로 낼 경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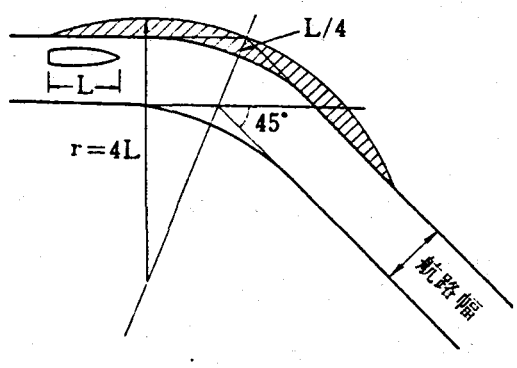
나. 항로법선(航路法線)

항로의 법선은 상시로 어선이 원활하게 출입항이 되는 것은 물론 황천시에 있어서도 안전한 조선(操船)이 가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항구(港口)부근의 항로법선은 항구의 위치, 방향및 항구부의 방파제의 배치에 따라서 결정됨으로써 양자는 일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항로의 법선을 결정하는 경우의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항로의 법선은 어선의 조선(操船)이 용이하도록 직선에 가깝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항로의 법선은 굴곡을 도리없이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항내의 정온도의 확보를 중점으로하여 방파제 또는 도제(島堤)가 배치되어 항구부(港口部)가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이다. 이때 굴곡부의 교각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선의 최대타각(最大舵角)은 통상 30°이며 이 이상의 각도에서 회전하면 선미가 외측으로 나가는 현상이 생기며 선장(船長)의 1/4정도 외측으로 이탈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굴곡부의 곡율반경(曲率半徑)은 어선자체의 회전반경과 위의 이탈량을 더한 것을 필요로 한다.

3) 수산공학연구기관 또는 선박기술연구기관등에서 어선에 대한 전복(轉覆)에 관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어선이 전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라는 것을 해명하고 있다.

· 횡파(橫波) 또는 밀려오는 경사파속에서 심한 동요로 갑판상에 해수가 치고 화물의 흐트림을 유발시켜 일어난다.

· 밀려오는 파도 또는 밀려오는 경사파속에서 선체가 파도의 정상에 놓여 있을때, 선체가 풍하측(風下側)으로 경사되어 타(舵)의 효력이 없는 상태로 파도를 타고 항주(航走)하는 현상에서 계속 해수가 치거나 구조물에 접촉하였을 때 일어난다.

이러한 일로 바로 항로법선과 최다파랑방향에 대한 적당한 각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항로를 정온토록 하고 항로 정면에 구조물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꽁·치

숯불로 굽는 소금구이 일품
껍질벗겨 회로도 먹을 수가

건·강·하·게·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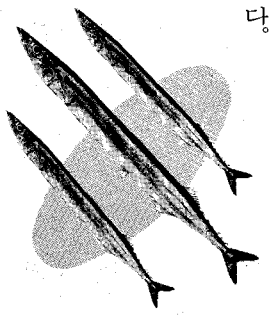
꽁치는 지방명으로 공치, 청갈치, 추광어 등으로 불린다. 몸은 가늘고 길며 체색은 은색, 등쪽은 검은 청색을 띠고 배쪽은 흰빛이다. 암컷은 아랫입술의 맨끝이 선명한 올리브빛을 나타내고 수컷은 오랜지빛이다. 눈은 작고 두부의 중앙에 있다.

꽁치는 냉수성 어류로 우리나라 동서남부 연해와 쿠릴열도에서 일본의 큐슈 고지마(五島)열도에까지 이르는 수역에 분포하며 미국 서해안에도 분포한다. 한대성 어류로 외양(外洋)을 떼를 지어 회유한다. 산란기는 5월~8월경(태평양산은 10~12월)인데 외양의 표층 근처를 떼를 지어 회유하다가 산란기에는 연안쪽으로 몰려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꽁치는 정어리, 고등어와 더불어 대표적인 다획성 적색육 어류에 속한다. 따라서 성분중 수분과 지질의 함량은 어체의 크기, 어기 등에 따라 다르다. 가식부의 지질함량은 가장 기름질 때의 대형어(32㎝이상)가 17~20%이며 25%를 넘는 것도 있다. 한편 어기의 초기에는 30㎝정도의 비교적 큰 것이라도 7~9% 정도이다. 그리고 소형(25㎝이하)인 것은 어기에 관계없이 5% 정도의 지질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다.

꽁치의 가공품 중에는 간꽁치가 있는데 그 가공공정은 다음과 같다. 꽁치를 바닷물로 씻은 다음 소량의 식염을 뿌리면서 상자에 채운다. 꽁치 중량의 15~20%에 해당하는 식염을 사용하여 간꽁치를 만들어 보존한다. 간꽁치의 영양가치는 생선꽁치와 큰 차이가 없지만 회분의 함량은 생것보다 많다.

또 꽁치를 등갈이 또는 배갈이하여 조미액에 3~4시간 담근 후 이것을 대발이나 쇠그물 위에 얹어서 건조하여 꽁치꽃포를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일종의 조미건제품이기 때문에 수분함량은 42% 정도로 적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은 생선상태의 꽁치에 비해 많다.



이밖에 꽁치의 가공품으로는 토마토소오스, 달금통조림, 조미통조림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성분값은 생선상태의 꽁치와 큰 차이가 없지만 뼈채로 먹을 수 있으므로 칼슘, 인 등 무기질의 섭취원으로써도 좋은 식품인것이다. 왜냐하면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 처리되어 뼈조직이 연화되어 있으므로 칼슘 등 무기질의 흡수율이 좋기 때문이다.

꽁치의 맛은 고등어, 가다랑어 등과 비슷하나 육질이 부드럽고 감칠맛은 이들에 비해 약간 적다. 꽁치맛의 특징은 지방에 있다고 한다. 기름진 꽁치의 맛을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조리방법은 숯불로 굽는 소금구이나 철판위에서 굽는 버터구이가 제격이라고 한다.

꽁치 지질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팔미트산, 올레산, 리놀렌산, EPA, 도코사핵사엔산 등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포화지방산이 28·4%, 불포화지방산이 81·6%로써 영양적인 면에서 우리몸에 좋은 지방질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선도가 아주 좋은 꽁치는 껍질을 벗긴 다음 생선회로 먹기도 한다.

'우리것'만 고집할 수 있을까

개방·자유화시대를 맞는 자세

국산, 마무리 소홀한게 가장 큰 흠
끝까지 정성다하는 장인정신 살려야

♣經·濟·교·실

가정주부 L씨는 요즘 전기밥솥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 많은 주부들이 외제만을 찾아 날뛰는데도 L씨만은 나름대로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다 국산밥솥이 보기에 외제에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한 개를 샀다.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둔 L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전기밥솥은 필수품이다.

처음 얼마동안 그런대로 밥도 잘되고 보온도 잘 돼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얼마뒤부터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다.

저녁에 먹다남아 솥에 넣어둔 밥만 믿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누렇게 변해있어 부랴부랴 다시 밥을 하느라 허둥대기 일쑤다. 걸핏하면 밥이 내부통에 눌러붙어 씻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옆집 주부가 자랑하는 일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밥도 잘되고 변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내부기계야 알 수 없지만 뚜껑과 밥통과의 틈새, 손잡이등이 탄탄하지 못하고 허술한 것 같았다. 밥솥하나 제대로 못만드냐는 생각에 화가 났고 일제를 살 것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들었다.

우리의 공산품기술은 이제 세계적이다.

많은 상품이 외국시장에 나가 외제와 겨루고 있고 국내시장에서도 수입상품과 나란히 팔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산품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 조그마한 것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 조금만 신경을 쓰면 훌륭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등이 허물이 되고 있다. 소위 마무리 손질이 부족한 것이다.

재단·옷감·디자인 등이 훌륭한 옷을 만들어 놓고도 단추구멍이나 지퍼의 손질을 허술히 해 전체 옷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훌륭한 옷이라도 지퍼가 말을 안 듣거나 단추구멍이 쉬 헤어지면 그 옷은 형편없는 옷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평이 자주 계속되면 결국 그 제품 전체가 불신을 받게되고 저질로 평가되게 마련이다.

미국에 여행하던 Y씨는 운동화 한켤레가 필요해 신발가게를 찾았다. 미국상표로 국내에서도 생산돼 눈에 익은 N표운동화 한켤레를 골랐다. 값을 물었더니 독일에서 만든 것은 40달러이고 한국에서 만든 것은 20달러라고 했다.

궁금한 나머지 주인에게 왜 같은 운동화에 이렇게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더니 신어보면 안다는 대답이었다.

이 사소한 결함이 오래 계속되다보니 한국제의 결함으로 고정돼 버렸고 이 때문에 엄청난 가격의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의 경우, 엔진등 기계부문은 그런대로 별 탈이 없는데 얼마 달리지 않아 잡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큰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딘가의 나사 한개가 제대로 죄어지지 않았거나 꽉 붙어있어야 할 부분이 떨어진 때문이다.

『장난감 자동차가 건전지를 넣어도 움직이지 않는다』『얼마쓰지 않아 태엽이 끊어졌다』『미니차의 바퀴가 빠졌다』『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해 어린아이가 손을 다쳤다』는 등의 장난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소비자고발센터에 줄을 잇고 있다. 모두가 기술수준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소한 마무리 손질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불만들이다.

학생들이 주로 쓰는 노트·물감등 학용품에도 이런 아쉬움은 있다. 질(質)의 문제는 그만 두고라도 제본을 허술히 해 자칫하면 노트장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가 하면 크레용·크레파스 등이 손에 묻어난다. 책가방은 고리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많고 필통뚜껑도 쉬 망가진다.

흔히 우리에게는 장인(匠人)정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물건 한개를 만들더라도 끝까지 정성을 다하여 훌륭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모자란다는 말이다. 비록 손톱깎기 하나이지만 갖고 있는 모든 열성을 다하여 세계최고의 물건을 만들겠다는 정신이 약한 것이다.

개방 자유화시대를 맞아 이제는 우리나라에 물건이 없으니 이 물건만은 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낡은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됐다.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經·濟·교·실